

numbers 제 84호



주요 내용

2021. 02.19

- 이번 주 주제 : [기독교 청년 신앙 의식]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 '매주 예배 참석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다.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청년 목회에서 예배와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그룹이 모이지 못하고 관계도 단절되었다. 소그룹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격려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청년에게는 신앙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듯 코로나19 기간 중 청년들의 신앙적 지표들이 대체로 하락했다. 10년 후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 정도면 청년 사역의 위기이다.

기성 세대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가 청년 세대라서 많은 목회자가 청년 목회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까지 더해져서 청년 지도 목회자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실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제 84호에서는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의식’을 다룬 83호에 이어 ‘기독교 청년의 신앙 의식’을 다룬다. 기독교 청년의 신앙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의 신앙적 특징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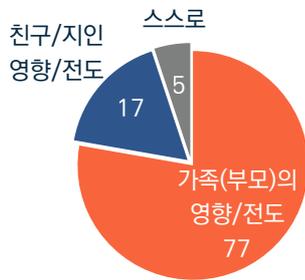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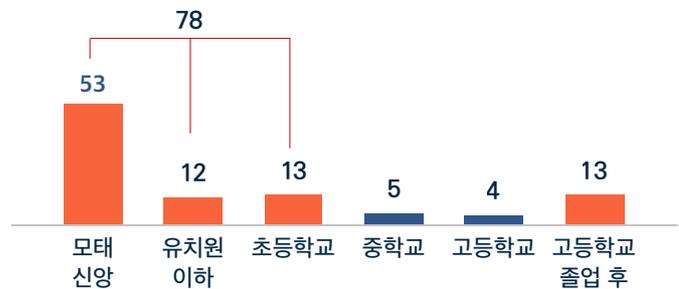
기독교 청년, 대부분(78%)이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기독교를 믿음

- 기독교 청년의 기독교를 믿은 시기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기독교를 믿은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대다수(78%)는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이었다.
- 기독교 청년의 대다수인 77%는 '가족(부모)의 영향/전도'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친구/지인의 영향/전도'는 17% 뿐이었다
- 즉 기독교가 가족을 통해서만 전파될 뿐,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 의한 외연 확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신앙 생활 계기 (%)



[그림] 교회 출석 시기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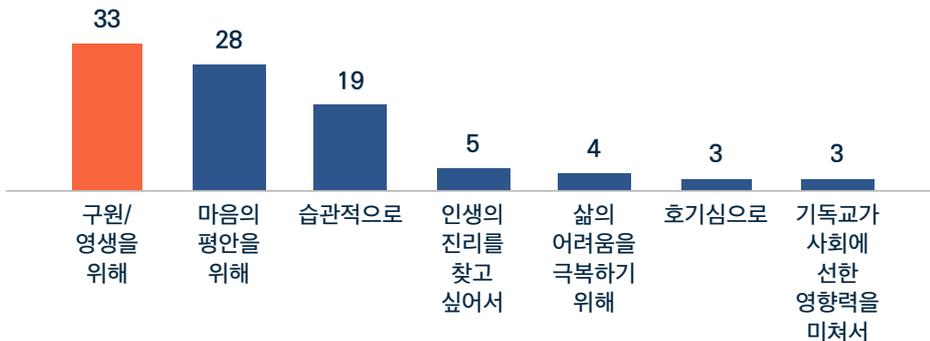
2



'구원/영생'을 위해 신앙 생활한다, 33%에 불과해!

- 기독교 청년의 신앙 생활 이유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영생을 위해'는 33%에 지나지 않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와 '습관적으로' 같은 비본질적 이유가 47%였다. 신앙의 본질적 요소 회복이 기독교 청년 신앙 지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신앙 생활 이유(상위 7개)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기독 청년의 신앙 형성에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

- 기독 청년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부모’가 60%, ‘교인’ 33%, ‘목회자’ 27%로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의 신앙 지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교회 교인’의 영향도 33%로 2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독 청년에게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를 엮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본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 요인(2개 응답, 상위 6개)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기독 청년의 신앙,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

-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일상 생활의 4가지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었다.
-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는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신앙이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일터’(64%)와 ‘학업’(64%)은 비교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이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그림] 신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도움이 된다’ 비율)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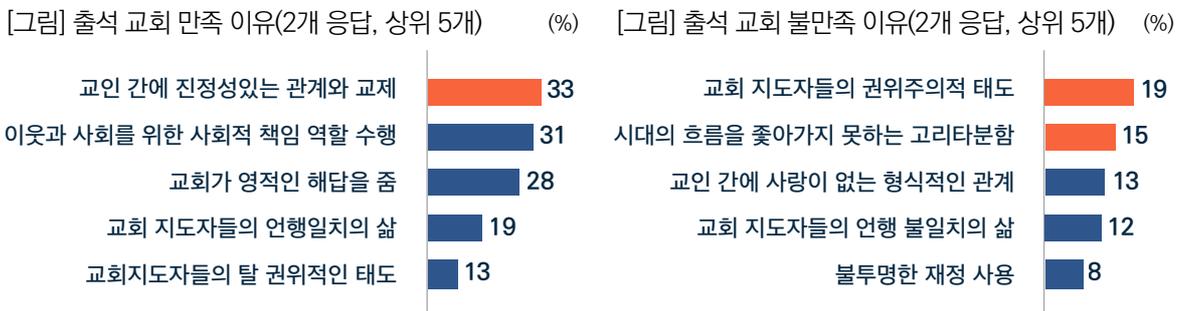
**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는 700명에게 질문한 결과이고 '직장/일터'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493명에게 질문한 결과이며 '학업'은 학생 117명에게 질문한 결과임

3



기독교 청년의 교회 만족 요인 1위, '교제' 불만족 요인 1위,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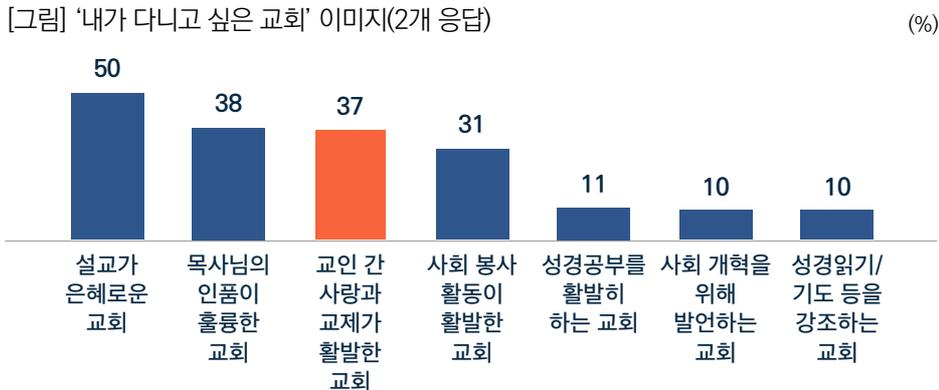
-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청년의 76%는 출석 교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교회에 만족스러워 하는 이유로 '교인 간에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독교 청년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를 통한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에 불만족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권위적'이거나, 교회가 '고리타분'할 때이므로 수평적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회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좋은 설교/목사님 외에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 다니고 싶다'

-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질문했을 때, '교인 간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37%로 상위권에 응답돼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설교'나 '목사님' 외에도 활발한 교제를 통한 '진실한 공동체'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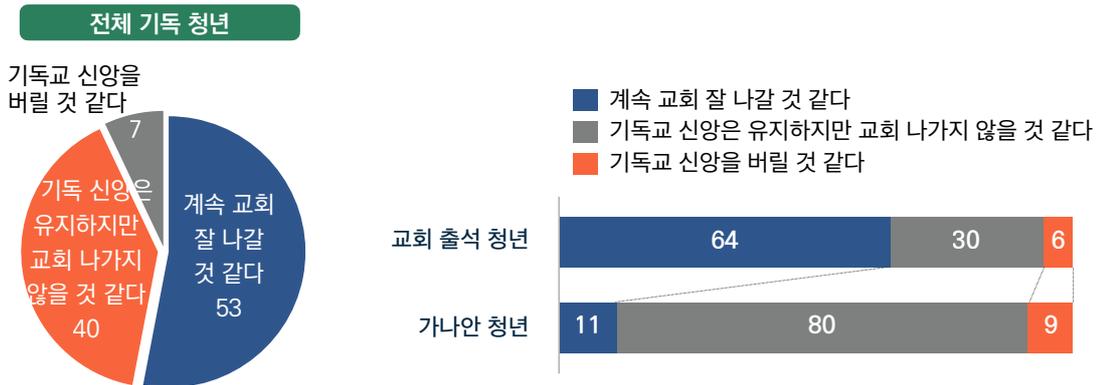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10년 후, 현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기독 청년 가운데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4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고 응답했다.
-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도 7%나 되었다.
- '교회 출석 청년' 기준으로는 10년 후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는 청년이 36%나 되었다.

[그림] 10년 후 신앙 생활 예상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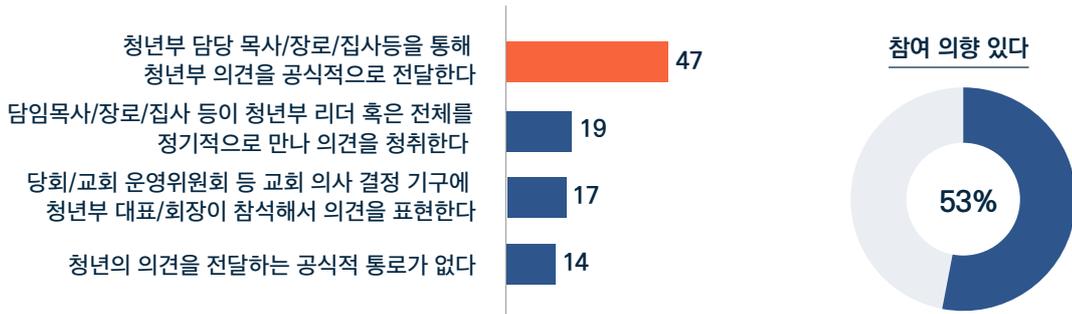


기독 청년 2명 중 1명 이상,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 청년이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절반 정도(47%)는 '청년부 담당 목사/장로/집사를 통해 청년부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며, '당회/교회 운영위원회에 청년부 대표가 참석' 한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즉 6개 중 1개 정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만약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회 정책이나 주요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53%가 참여 의향을 보여 비교적 높은 의향률을 보였다.

[그림] 청년의 교회 의사 결정 구조 참여 통로

(%) [그림] 청년의 교회 의사 결정 구조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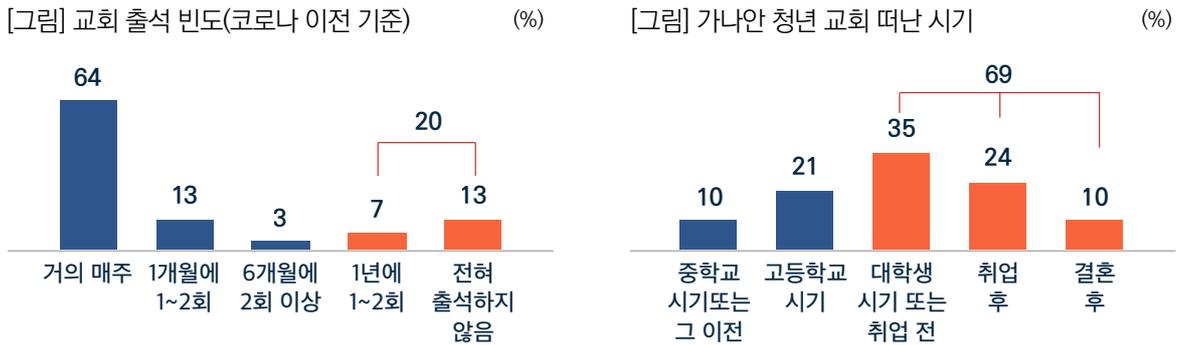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5



가나안 청년이 교회 떠난 시기, 10명 중 7명 '고교 졸업 후'

- 코로나19 이전 기준,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 어쩌다 한번 출석(1년에 1~2회 이하)하는 경우까지 '가나안 성도'로 규정했을 때, 기독교 청년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20%로 조사됐다.
- 기독교 청년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시기는 주로 '대학생 시기'(35%)와 '취업 후'(24%) 및 '결혼 후'(10%)였다. 즉 청년기에 가나안 성도가 되는 비율이 69%이므로 청년기의 신앙 지도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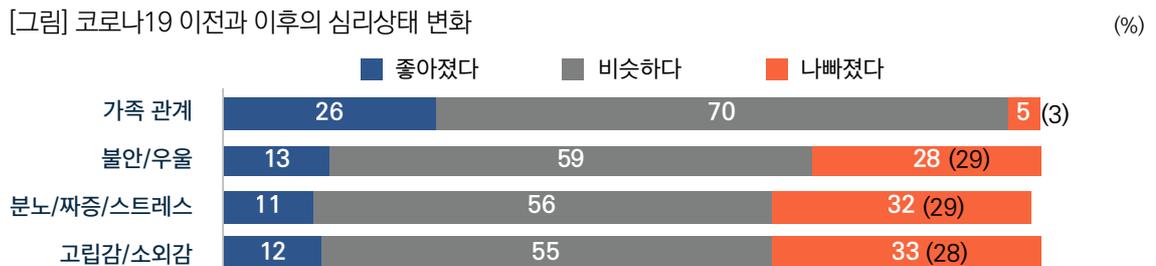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6



기독교 청년,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장년보다 '부정적 감정 더 심해져!'

-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을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더 우울해지고, 분노/짜증/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고립감과 소외감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코로나 블루에 대해서는 넘버스 59호 참조)를 '기독교 청년'도 상당수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 관계는 '좋아졌다'고 한 비율(26%)이 '나빠졌다'는 비율(5%)보다 높았다.
- '개신교인 장년(40대 이상)'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기독교 청년'이 '분노/짜증/스트레스'와 '고립감/소외감'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아, '기독교 청년' 가운데 부정적 감정이 '개신교인 장년(40대 이상)'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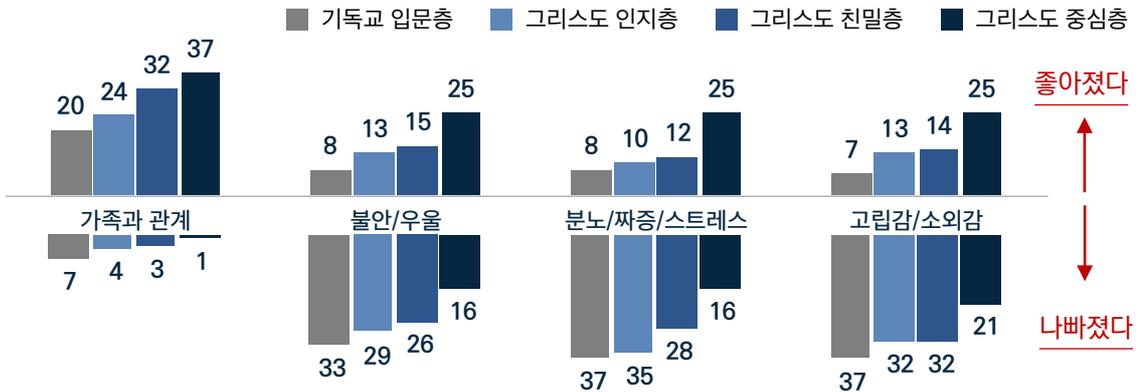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안은 개신교인 장년(40대 이상)의 '나빠졌다' 비율임(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1.01. 전국 40대 이상 개신교인 667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코로나19 이후 심리 상태, ‘신앙이 깊을수록 긍정적으로 변해!’

- 주목할 점은,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층’을 제외한 다른 응답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심리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그리스도 중심층’은 오히려 약간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심리상태 변화(신앙 수준별)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Note : 기독교 입문층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인지층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친밀층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그리스도 중심층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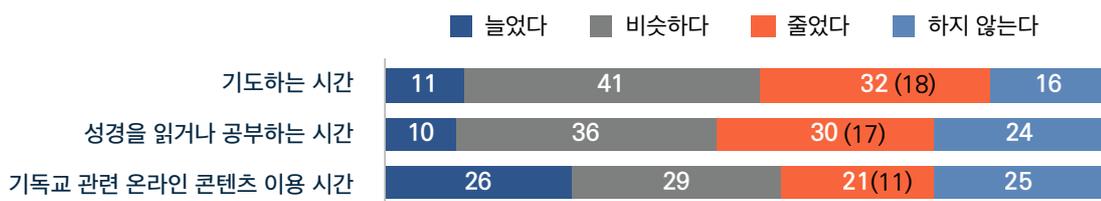
7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신앙 생활이 위축된 가운데, ‘온라인 이용만 증가’

- 코로나19 이후 교회 예배 및 모임이 제한을 받으면서 개인적 신앙 생활이 중요해졌지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등의 개인적 경건생활은 ‘증가’했다는 비율보다 ‘감소’했다는 비율이 더 높아서 개인적 신앙 생활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 ‘기독교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은 소폭이지만 증가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이 대면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신교인 장년(40대 이상)’과 비교하면, ‘기독 청년’의 개인 경건 생활은 ‘개신교인 장년’보다 ‘줄었다’는 비율이 크게 높아, ‘기독 청년’이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 심하게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개인 경건 생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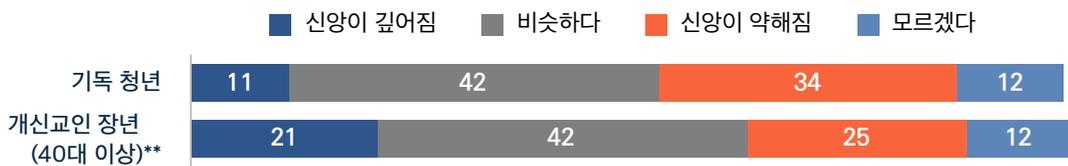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안은 개신교인 장년(40대 이상)의 ‘나빠졌다’ 비율임(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1.01. 전국 40대 이상 개신교인 667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코로나19 이후 기독 청년의 질적인 신앙 변화, '개신교인 장년'과 비교해 하락폭 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 청년'의 신앙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34%)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11%)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의 질적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 '개신교 장년(40대 이상)'과 신앙 수준 변화를 비교해 보면, '장년'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이 25%, '청년'은 34%인 반면, '신앙이 깊어졌다'는 응답은 '장년' 21%, '기독 청년' 11%로, 전반적으로 '장년' 대비 '기독 청년'의 신앙의 질적 하락이 더 심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의 질적인 변화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자료 출처: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1.01. (전국 40대 이상 개신교인 667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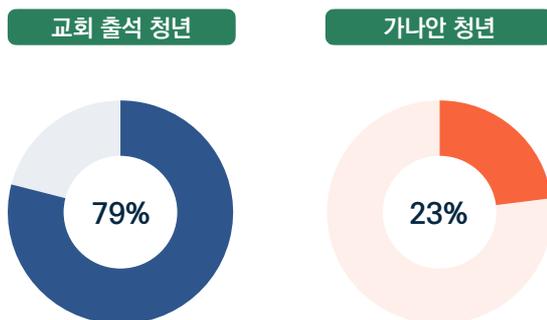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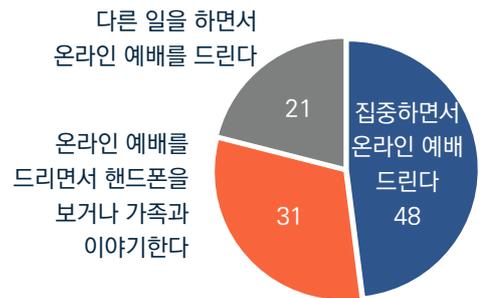
기독 청년 2명 중 1명, 온라인 예배 시 '다른 일 하거나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린다'

- 코로나19 발생 후 기독 청년의 온라인 예배 경험율은 전체적으로 68%로 나타났는데, '교회 출석 청년'은 79%, '가나안 청년'은 23%로 각각 나타났다.
- 온라인 예배는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알기 위해 예배 자세를 질문했다. 절반 가량의 청년(48%)은 '집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한다'(31%)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21%)고 응답해 온라인 예배의 예배 집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



[그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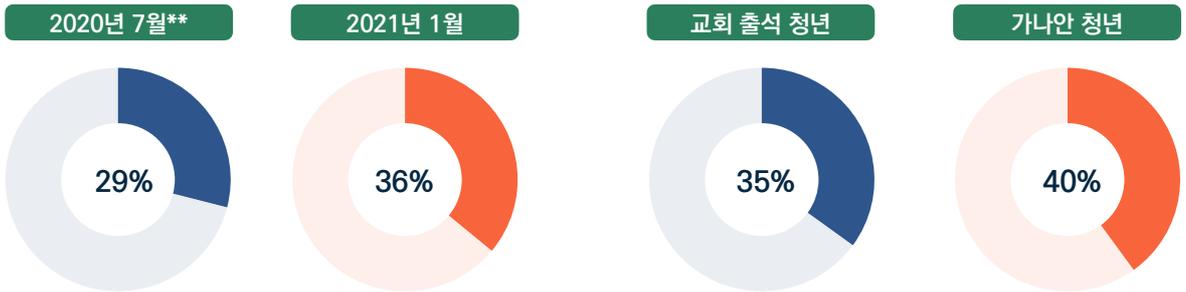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기독 청년,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 '2020년 7월 29% → 2021년 1월 36%'

- 모든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회에 대해 출석 의향률이 36%로 나타났는데, 작년 7월 조사 때 29%에서 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교회 출석 의향률을 교회 출석여부로 구분하면, '교회 출석 청년'은 35%, '가나안 청년'은 40%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온라인 교회 참석 의향(기독 청년)

[그림] 온라인교회 참석 의향(교회참석 여부별)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20~39세 개신교인 378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 기독 청년,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 높아!

- '기독 청년'이 가장 많이 접한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는 '예배/설교'로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었으며(55%) 2위는 '찬양'(39%)이었다. 설교와 찬양에 이용이 집중된 가운데 '신앙 지식/교양'(16%), '성경 및 신학 강의'(15%)는 10%대의 이용률을 보여서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의 다양화에 대한 '기독 청년'의 욕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향후 강화하기를 바라는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도 '예배/설교'(37%)가 가장 높았지만, '신앙 지식/교양'(15%), '성경 및 신학 강의'(14%) 등을 원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 경험 (%)

[그림]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강화 희망 장르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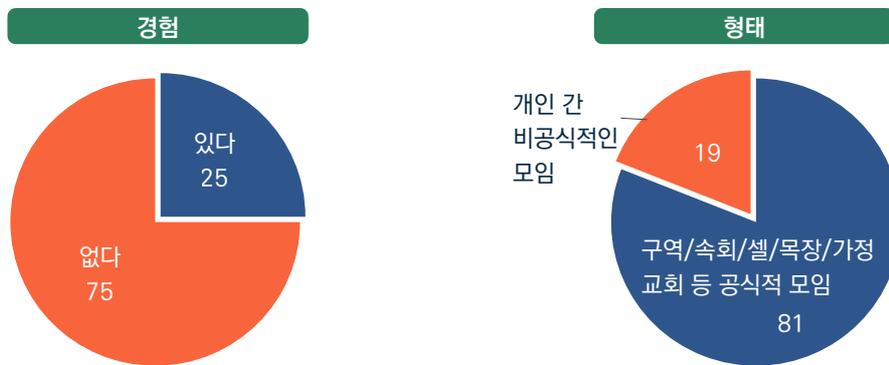
9



‘Zoom’을 통한 신앙 모임 경험 25%

- ‘Zoom’ 혹은 ‘실시간 미팅 앱’을 통해 교회 혹은 신앙 관련 소그룹 모임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4명 가운데 1명꼴인 25%만이 ‘있다’고 응답했고, 75%는 ‘없다’고 응답해 ‘Zoom’을 이용한 소그룹 모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Zoom’ 등의 온라인 앱을 통한 신앙 관련 모임은 ‘구역/속회/셀/목장/가정교회 등 공식적 모임’이라는 응답이 81%, ‘개인 간 비공식적 모임’이 19%로 거의 교회의 공식적 모임이었다.

[그림] Zoom/온라인 실시간 미팅 앱을 이용한 신앙 관련 모임 경험과 형태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Zoom’을 이용한 신앙 모임 만족도 77%

- ‘Zoom’ 등의 온라인 앱을 이용해 모임으로는 ‘교제’가 59%로 가장 높았고, ‘성경공부’ 45%, ‘예배’ 42%, ‘회의’ 29%, ‘기도회’ 26%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Zoom’ 등의 온라인 앱을 이용한 신앙 관련 모임에 대해 ‘만족’ 77%, ‘불만족’ 18%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서 Zoom의 활용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Zoom/온라인 실시간 미팅 앱을 이용한 신앙 관련 모임의 구체적 활동(복수 응답, 상위 5개) (%)



[그림] Zoom/온라인 실시간 미팅 앱을 이용한 신앙 모임에 대한 만족도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의 기독 청년은 대부분 부모나 가족의 인도에 의해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3쪽). 개신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왕성한 '전도' 활동이 개신교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제 전도가 위축된 시대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기독 청년인 것이다. 이들은 자의에 의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므로 신앙적 결단없이 신앙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가족 의례 가운데 하나이고 일종의 가족 문화 정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관념 속에 교육은 교육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신앙 교육도 교회에 맡겨 놓는 가정이 많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앙 교육은 학교의 지식 교육과 달리 생활 교육이라서 교회에만 맡기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교회의 신앙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가정의 신앙 교육은 '보여주고'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일상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녀가 신앙을 자연스럽게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온라인에 기반을 둔 청년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구보다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청년 세대이다. 기독 청년도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삶을 나눈다. 기독 청년이 출석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1위로 응답되었다(5쪽). 그래서 어느 교회나 청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그룹' 활동이다. '소그룹'이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 청년부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 청년들의 대면 접촉이 제한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도 타격을 받았다.

비대면 사회에서 소그룹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고려할만 한 것이 '줌'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줌'을 이용한 신앙 모임을 한 비율이 25%로 낮았지만 줌을 이용해서 한 활동은 '교제', '성경공부', '예배', '기도회' 등으로 다양했다(11쪽). '줌' 소그룹 미팅이 대면 미팅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도, 이미 대면 강의 못지 않게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고, 음성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카톡)을 선호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줌'을 이용한 신앙 모임을 해 본 기독 청년의 만족도가 77%(11쪽)로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줌'이 청년 소그룹을 유지시켜 청년들의 신앙 생활을 돕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 온 변화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한다. 앞으로는 커뮤니케이션과 소그룹 활동은 온 오프라인을 오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년 목회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교회 청년의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 요구' 문제이다. 기독 청년들의 절반이 넘는 53%가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 의향을 밝힌 것이다(5쪽). 기독 청년의 가나안 전환율 증가가 예상되고, 교회 불만족 이유로 권위주의적 태도 등 교회의 경직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독 청년들을 고려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젊은 층을 교회 내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함께 참여시켜 다음세대와 진정으로 함께 호흡하며 성공적으로 바톤터치하는 교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2. '매주 예배 참석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코로나 이후 한국인의 정신 건강 추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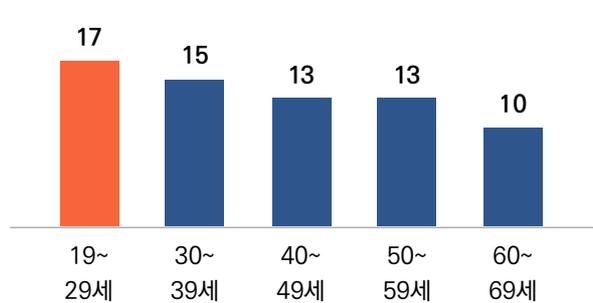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2주간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의 13%가 '있다'고 응답했다.
- 이번 조사는 위 기관이 코로나 발생후 4번째 실시한 조사인데, '자살 생각' 비율이 '3월' 10%, '5월' 10%, '9월' 14%, '12월' 13%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 중에서 20~30대가 '자살 생각' 비율이 가장 높아, 그만큼 코로나19가 젊은이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 있다' 응답률 (코로나 19 이후 추이) (%)



[그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 있다' 응답률(12월 기준,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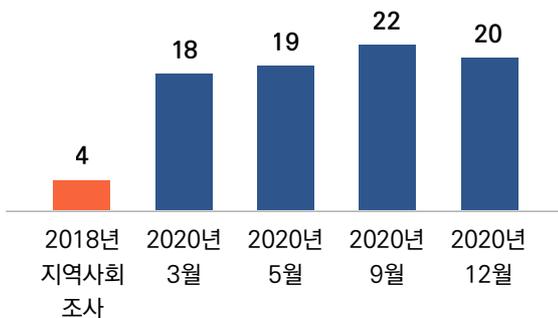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년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1.18.(전국 성인19~70세 남녀, 1차 1,014명, 2차 1,002명, 3~4차 각각 2,063명, 온라인 조사, 2020년 3.5.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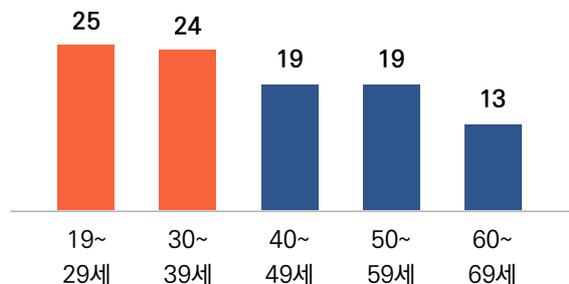
● 우울 위험군, 2018년보다 코로나19 이후 5배 가량 증가

- 우울 위험군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지역 사회 조사' 결과에는 우울 위험군이 4%인데 반해, 코로나19 이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 연령별로는 '자살 생각' 총과 마찬가지로 20대가 25%, 30대가 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젊은층의 정신 건강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울 위험군(2018 vs 2020년) (%)



[그림] 우울 위험군(2020년 기준, 연령별) (%)



*자료 출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년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1.18.(전국 성인19~70세 남녀, 1차 1,014명, 2차 1,002명, 3~4차 각각 2,063명, 온라인 조사, 2020년 3.5.9.12월)

**PHQ(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측정 :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로서 총 9문항을 4점 척도(0~3점까지로 0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은 '거의 매일')로 질문하여 응답 결과를 모두 합한 점수로 측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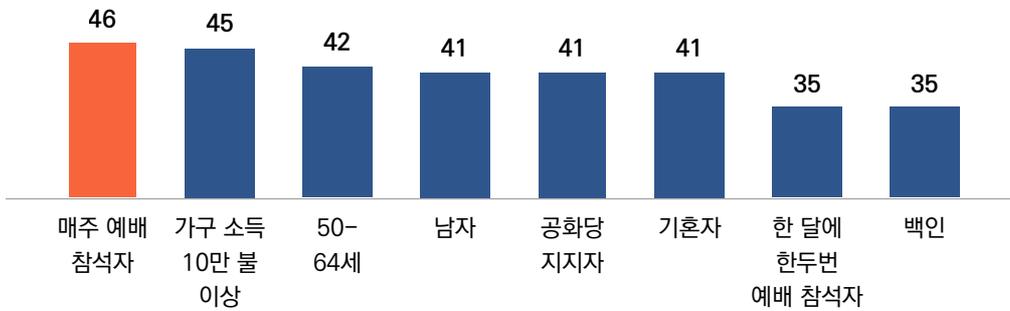
미국인의 정신 건강



매주 예배 참석하는 미국인, 미국의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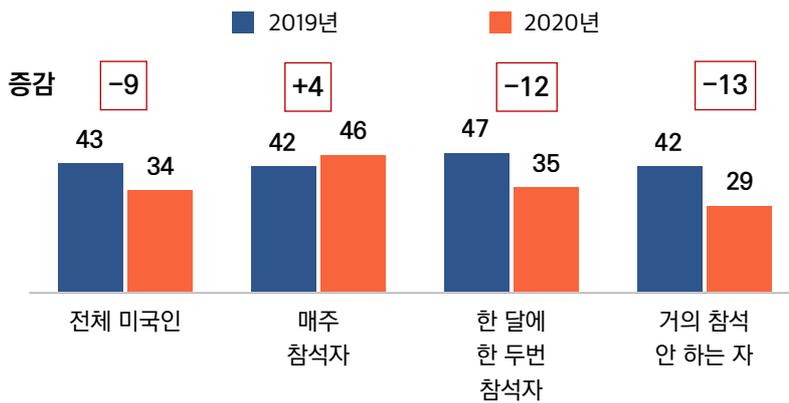
- 미국 갤럽이 실시한 ‘11월 건강과 의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46%가 정신 건강이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가구소득 10만불 이상 상류층과 비슷한 응답인데, ‘매주 예배 참석자’는 2019년 대비 자신의 정신 건강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모든 집단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 자신의 건강이 우수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2019년에는 ‘예배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 자’와 ‘매주 출석하는 자’와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20년은 ‘매주 예배 참석자’는 4%p 증가한 반면, ‘거의 참석하지 않는 자’는 무려 13%p 하락해 두 그룹 간 17%p나 차이가 났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출석 정도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림] 미국인 집단 별 정신 건강 ‘우수하다’ 응답률(2020년, 상위 8위) (%)



*자료 출처 : 미국갤럽, 'Americans' Mental Health Ratings Sink to New Low', 2020.12.7.(미 50주와 워싱턴 DC, 성인 18세 이상 1,018명, 2020.11.5~19)

[그림] 집단 별 정신 건강 ‘우수하다’ 응답률(2020년, 상위 8위) (%)



*자료 출처 : 미국갤럽, 'Americans' Mental Health Ratings Sink to New Low', 2020.12.7. (미 50주와 워싱턴 DC, 성인 18세 이상 1,018명, 2020.11.5~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로또 1등에게 물었더니..."당첨금으로 부동산 살 것" 42%](#)

연합뉴스_2021.02.12.

['그냥 쉬는 2030' 1년 새 31% 늘어](#)

경향신문_2021.02.14.

일
반

['조폭 상징' 옛말..."타투 인구 300만 달해"](#)

연합뉴스_2021.02.16.

[미투운동 지지 69% 3년만에 15%p ↓ , 20대 남성 '77%→29%' 급락](#)

플리뉴스_2021.02.17.

인
구

["작년 출생아 북한보다 적을듯...GNI 1조달러 초과 16개국 최저"](#)

연합뉴스_2021.02.14.

['인구 3만명'의 벽이 깨졌다...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

머니투데이_2021.02.10.

["20년뒤 3명중 1명 노인"...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 OECD 1위](#)

뉴스시스_2021.02.11.

경
제

[저소득층 月근로소득, 68만원→59만원](#)

조선일보_2021.02.19.

[서울 1인당 지역총생산 4천366만원...강남구, 강북구의 22배로 격차 벌어져](#)

연합뉴스_2021.02.16.

[유튜버 상위 1% 年 6억 넘게 번다](#)

동아일보_2021.02.16.

[비대면 소비 확산·구독 경제 트렌드...온라인 식품시장 거래 40조원 돌파](#)

경향신문_2021.02.15.

[국내 부자 '툼 6' 재산, 코로나에도 80% 이상 증가](#)

경향신문_2021.02.14.

[가장 비싼 아파트, '한남더힐' 7년 연속 1위](#)

동아일보_2021.02.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9

[국민10명 중 4명 '코로나 우울' 겪는 시대 일상복귀 가능할까](#)

동아사이언스_2021.02.06.

[거리 두기 1년 빅데이터분석, 민심은 '방역'보다 '생계'](#)

한국일보_2020.02.17.

기
타

[국민 10명 중 7명 텀플스테이 코로나 블루 해소에 도움](#)

한국경제_2021.02.17.

["남한살이 쉽지 않네요"...탈북여성 25% "술집 노래방 도우미 경험"](#)

매일경제_2021.02.16.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 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김지현, 이춘봉, 홍의숙(인코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83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을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제 83호 |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